

한글

한글의 통일은

지금으로부터

한글이 창제된것이 사백여년
이로되 한번 정리의 손이 들
지 못하였고, 한글 정리의 운
동을 비롯한것이 사십여년이로
되 모잖아 한 일이 없었으니,
그 불통일하고 혼란한것은 의
례이 있었을 일이다.

우리글은 어느 때든지 오늘
과 같이 이렇게 혼란 불통일
하게 쓰기를 맡겨두고만 말것
이 아니다. 누구가 쓰는지 어
떠한 종류의 글이든지 우리말
로 된것이면 반듯이 일정한 법
칙 아래에서 희일한 통일이 있
어야 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우리 조선어학회에
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
안은 단순히 이를 위함이다.
이 통일안이 세상에 한번 발
표되어, 아직 일년이 차지 못

號六第·卷二第
【號月九】
1934

一 部 一
錢 五 金 一
錢 十 三 金 六
錢 五 十 五 金 一

所行發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營振

우리글의 통일은 오직 이 잡지로

하여 일반 사회의 추세가 다
여기에 기울어진것은 숨기지 못
할 사실이다. 교육계, 언론계는
그만 두고라도, 각 인쇄소에서
나날이 박아내는 일반 간행물을
보건대, 심에 팔구는 거의 전체
나 후 일부분이라도 모두 통
일안 철법을 따르지 않는것이
있는가. 심지어 길거리에 붙은
간판이나 광고지 같은것에도 하
다못해 병서만이라도 쓰기들을
한다. 이는 어떠한 세력으로도
막을수 없는 자연한 현상이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글 통일의
기운(機運)이 돌아온것을 알겠
다.

앞서 윤치호씨 일파의 반대
운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한글
통일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
표한 문예가(文藝家) 제씨가 있
었고, 이어서 김팔봉(金八峰),
김동인(金東仁) 제씨의 개인으
로서의 통일안 지지에 관한 논문
이 지상으로 발표되었고, 또 회

월, 노산, 안서 제씨도 장차 이
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리라 할
을 들었다. 우리는 만강의 정
성으로 문예가 제씨에게 감사
를 드린다. 이는 유독히 우리
를 지지하고 직을 배격하여준
다 하여 그런것이 아니라, 실
상 한글의 주인이라 할 문예
가 제씨가 지금까지 한글에 대
하여서만은 도무지 관심하는바
없었거늘, 오늘날 이러한일이 있
게 된것을 어찌 우연이라 하
라.

백사람의 반대가 오직 한사
람 실제가의 굳센 주장을 꺾
을수 없는것이요, 만사람의 떠
드는것이 다만 한사람 문필가
의 실행함만 못한것이다. 다른
나라의 철자 통일의 예를 보
더라도, 이탈리아는 단테로서, 영
국은 초서로서, 우르시아(露國)
는 고틀로서, 도이취(獨逸)는
루터의 성서 번역으로서, 이런
게 큰 문호 한사람의 위대한 붓
의 힘으로써 다 각기 그 나라
글의 통일이 완성된것은 역사
가 증명한다. 오늘날 조선에 있
어 문예가 제씨의 이 쾌거야 말
로 이제 이에서 다름바이다.
아무리 훌륭한 좋은 철자법

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세상사
람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
고, 문필에 종사하는이들이 실행
하여주지 아니하고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이 그대로 한수
지 못령이로 돌아갈 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통일안
에 대하여는 이미 전사회적으로
지지함이 컸을뿐더러, 문예가 제
씨로서 이렇게 실행하여줄을 볼
때에, 이제는 과연 우리글을 완
전히 통일할 날이 속히 오리
라고 확실히 믿는다.

목차

- 한글의 통일은 지금으로부터.....(1)
- 한글 통일과 보급에 관한 여러분의 말씀.....(2)
- 한글 바꾸잡아 쓰기 의결.....(4)
- 한글 타일우라이터의 유래 宋基柱.....(6)
- 표준말에대 하여..... 이윤희.....(7)
- 「선어」를「조선어」로.....申瑛澈.....(7)
- 물음과 대답.....(7)
- 朝鮮語讀本 指導例.....沈宜麟.....(8)
- 조선말본 길잡이.....崔鉉培.....(10)
- 朝鮮語讀本 語彙調査.....李浩盛.....(12)
- 열두달의 별稱.....金台俊.....(12)
- 새글 정구영언.....(13)
- 옛말 찾기.....(14)
- 한글 綴字法 是非에 對한 聲明書.....(15)
- 新京 有志의 聲明書.....(15)
- 북사판.....(15)
- 한글 신문.....(16)

한 글 의 통 일 과 보 급

먼저 자기를 알아
한글 통일운동의

農民生活 主幹 李勳求

나는 우리 조신사람은 남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알기 전에 먼저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알아야 하겠다 하며, 남의 현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자기의 현재를 잘 배워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남의 것만을 잘 알고 배우려고 하여서 심한 경우에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남에게 동화(同化)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필요도 느끼지 않지만, 모화사상(慕華思想)의 중독한 폐해로 자기의 좋은 문자를 천시하고 한문자(漢文字)만을 좋은 글도 안 것도 그것의 한가지라고 보겠읍니다. 근자에 와서 미약하나마 자기를 알아보겠다, 자기를 찾아보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난듯한데, 만일 그렇다면 한글의 통일과 및 그의 보급운동이 그 첫 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가 찾고 알고 살리고 장성하게 하고 발달하게 하는 진리를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우리 조신 사람으로서 이 한글의 통일과 및 그의 보급은 급무중에 급무의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개인이 다 쓸 날이
속히 올것을 믿는다

監理教會報 主幹 田榮澤

나는 벌써부터 한글식 철자에 준해서 쓰여 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속히 세

상에 통일이 되기를 고대하였다니, 마침내 『한글』 통일의 발표된 것을 보고 무한 기뻐했습니다. 「통일안」은 세상이 아무 생각없이 지낼 동안에 우리의 친각자 되시는 조천어 학자 여러 분이 수십년동안 많은 정력과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연구와 토의를 거듭한 결과로 가장 신중한 태도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벌써 그네들의 오래전부터 뇌를 써며가면서 연구한 것이니, 경솔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 우리는 다만 그네들의 노력과 지성에 감복하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줄 압니다.

나 개인으로는 내가 편집하는 간행물은 물론이요, 어떤 글을 쓰든지(일상에 서신을 기록하는 대도) 통일안에 따라 씁니다. 그리고 각 신문이나 웬만한 잡지에서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케는 모든 인쇄물에는 물론이요, 개인개인이 붓을 들면의 레이 습관적으로 통일안대로 쓰도록 힘써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문화 발전에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이니, 각 언론 기관과 각 사회에서 좀 더 힘있게 그 실행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개인개인이 그대로 쓰는 날이 속히 올 줄 압니다.

언어의 반대운동은
귀 기울이지 말라

開闢社 主筆 車相瓊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내신지 오백년이 다 된 오늘에 와서, 우리글의 변천한 자취를 돌아다볼 것 같으면 실로 한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문자 조직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의 문

자보다도 가장 이상적으로 되었다는 우리글로 거두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엔 각인각색으로 이 이상 더 혼란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귀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글의 통일을 완성함에 대하여는 충심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요사이 새간에는 일부 인사들이 한글 철자법에 대하여 불의가 일어난 모양이나, 우리는 대성(大成)을 위하여 적은 희생을 가져가겠다는 것과 대다수의 전문가를 신용한다는 의미에서 귀회의 통일안을 지지한다.

비단 문자운동에뿐 아니라, 어떤 일든 지한 부의 반대자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은 무엇 보라도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니, 여기 귀 기울림이 없이 더 한층 연구에 몰입할 것이다. 우리 개혁사가 참람한지 십오년 동안 조천의 문화운동에 다 소의 공헌이 없지 않았으나, 문자를 주로한 운동에는 소홀하였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우리 사에서 발행하는 어린이는 신철자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여성과 별건곤도 이에 따를 것이며, 여러해동안 휴간중에 있던 『개혁』을 속간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신철자법으로 하여보겠다는 안은 이미 작정되었다.

글과 가장 접촉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前線社 主幹 朴來源

一, 조천어학회에서 케정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대로 쓰기로 하되, 위선 각 신문 잡지나 그의 모든 출판물을 이 한글에 맞추어 쓰기를 하루바삐 실현하였으면 합니다.
二, 각 종교단체의 교역자 각 언론기관의 신문 잡지 기자, 각 학교 교원, 인쇄소 직

각 계 여 리 분 의 말 승

【回】

공, 시적, 저술자등 매우 글을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읽게 되는 즉 글의 접촉이 많은이 들에게 한글 강습을 자주 열어 오랫동안 잘 못 써오던 버릇을 고쳐지게 하였으면 한글의 통일과 보급이 자연 넓히 쉽게 되리라 고 봅니다. 그리고 긴급한것은 보통학교 초등교과서를 하루바삐 이 다듬법대로 개정하도록 하게 할것입니다.

二、우리 친도교 청년동맹 기관지 『진신』은 한글 다듬법 통일안이 발표된 후, 현재 다듬법에 맞추어 쓰기를 실행하고 있는중입니다.

기회 있는대로 자랑하며 아는대까지 가르친다

宗敎時報社 姜炳周

한글 다듬법 통일안이 발표됨은 당면의 상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옛 철자법을 반대하고 새 철자법을 더 좋은것이 라고 말하는것보다, 조선말이 일정한 법칙이 없으므로 편지 한장이나 책자 한권 안에 서도 같은 말들을 여기에는 이렇게 쓰고 다른 곳에는 저렇게 써서 막대한 불편을 느끼리니, 조선사람치고 누구나 조선글 통일안이 나오기를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조선글을 읽고 쓰고하기를 거친사십년인데, 그동안 많이 생각하던중 이케야 한글 다듬법 통일안이 발표되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도 하며, 아는대까지 강습도 시켰습니다. 한글 다듬법 통일에 대하여 재론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글 다듬법 통일안을 연구 발표하신여

리 선배 케씨께 치하를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시보에는 무릉 통일안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관정량의 문화전

중심기관이 필요

新人間 主幹 金道賢

한글 빠르게 통일하며 넓이 보급하는것이 우리 조선사람으로 무엇보다도 매우 긴급한 일인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는 다만 어떻게 하면 속히 한글을 통일하며 보급할수가 있겠는가 하는 방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많겠으나 간단히 말씀하면 첫째 일즉부터 한글 연구에 특별히 힘써 오는 권위자 여러분께서 한층 더 분투하여 할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더욱 지도자가 많이 나서도록 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 작년 시월에 발표된 조친어 철자법 통일안에 의지해서 소학교로부터 각학교의 교과서를 통일하며, 각 언론기관에서 출판하는 출판물과 기타의 일반 서적을 일체로 여기 에 의지하여 출판하게 하며, 각 종교단체와 기타의 모든 단체들이 서로 호응하여 도시와 농촌 곳곳마다 강습회를 열게 하는것등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행에 있어서 그렇 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결국은 어떤 큰 역량을 가진 문화적 중심기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척하게 하는것이 지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한글 연구회

과연 획시기적이다

이생활 主幹 崔鳳則

한글 신철자법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종래 불규칙하게만 써오던 삼십세 이상 몰리해한 인물들을 상대하여 의문하려 하게 하지 말고, 과학방법에 새로 나서는 후진에게 촉망을 두는것이 침정일것입니다. 누가 무어라거나 한글의 독특한 글자의 힘쓰기의 본을 초등교육 기관에서 쓰고, 중학생 표준으로 한 귀지 「한글」의 내용을 더욱 취미있게 꾸미어 학생 친척가 다 독자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한글 보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할것이니, 보통학교 교과서가 바른 철자법대로 되고, 약간 부족한 점도 있으나, 동아일보는 재액을 회생하여가며 개량 활자를 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일부분만은 벌써 실행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잠지로는 아이생활 어린이 아이동무등이 모두 새 철자법표준이요, 일반 대중의 잠지로 신동아, 신가정, 분은 쓰고 있으며, 그리고 기독교측에서 발행하는 주간 기독교신보와 매월 삼사만부를 발행하는 월간 종교시보 동민생활 감리교회회보등 기타 일반 종교시보는 친화 새 철자법만 사용하고 있으며, 여름의 계몽운동과 하기아동성경학교에서 쓰는 교재도 다 새 철자법으로 되어, 이렇게 전조선적으로 한글은 동발된것은 과연 획시기적(劃時代的)이라 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더욱더욱 발달될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말지 않습니다.

한글 바루 집아 힘익

그런대로 쓰는것의 잘못을 바루잡아 쓰기를 의하는것이 우리글을 통일하는데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난을 두는것이다. 이것을 읽을 때에 그 절에 바루잡아 쓴것을 깊이 주의하며 보기를 바란다.

가난한 새끼 장사 스티븐슨 지음



6818080

그 일을 하였지만, 언케나 한결가치가
난만 하여서 골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이다라는 부
자가 하산의 집을 차켜 와서
『여보게 하산, 자네는 언케나 그러
케 어렵게만 지나는 모양일세 그러
여기 돈이 천냥이 있스니, 이거를 갖
다가 잘 운용하여서 좀 장사를 늘
려보게』하고 하산의 손에다 돈이
천원을 쥐여 주었습니다.
하산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놀래
어서 사이다의 얼굴을 별거니 한
참 쳐다보다가,
『나리! 이게 정말이십니까. 더구
나 이렇게 많은 돈을. 참 너무 고

슴습니다. 한번 삼작 놀나실만치 장
사를 크게 해서 보켜 드리지요』
하고 한번 치사하며 조와했습니다.
그런데 하산은 이리케 많은 돈을
얻다가 감추어 들고 사고 생각해보
았으나, 병장 하나 귀작 하나 없
림살이이므로, 마땅히 감춰둘
살림사리임으로, 맛당히 감춰둘
라고는 되지 안했습니다. 그래
는수 업시 그 돈을 케 모자 속에
다 누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돈도 생긴참이요, 하산은
그 모자를 쓰고 커덕밤을 한번 잘
머그랑으로 고기를 사려 동리 앞
개로 나갔습니다. 고기를 사가지고
아오는 길인데, 공중에서 솔개란
이 그 고기를 빼스라고 합니다.
하산은 고기를 안 썩이라고 이로
썩저갓다 커로 피해갓다 하는중에 모
자가 그만 머리에서 훌떡 버셔켜

어졌습다.
『여바라 솔개야, 내이 고기를 즐
거이니, 그 모자를 도로 다고』
하고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
웃 사람들까지 무슨 일이 냐나 하
고, 모다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 소
리를 가지하여 솔개를 불냈지만, 솔
개는 드르네만치고 어대도 가버렸
습니다.
모처럼 얻은 돈을 썩고보니, 하
산은 그만 귀가 막힐 지경이나, 그
러나 었저는수가 업스닛가, 그대로 집
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역시 귀과 같이 날마다 날파
다 새끼를 꼬아서 근근히 지냈습니
다. 그러나
『이번에 사이다를 만나면 무어라고
사과를 해야 올을까』
하는것이 매양 걱정거리였습니다.
二
그러자 한 반쯤 지나서 하로는
별안간 사이다가 정말 하산의 집을
찾아 왔습니다.
하산은 하도 부끄러워서 어대도
망이라고 치고서엿스나, 수를수도 업

고 해서, 손을 쓱쓱 휘비며 불긱불
긱 사이다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리! 너무나 어이없는 노릇을 당
했습니다』
하고 솔개의게 모자와 돈 썩긴 이
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사이다는 아모 말도 아니하고 듯
고만 잇다가, 품안에서 돈 이천
냥을 내여노으며,
『하산! 다시 한번 이천냥을 주는
거시니, 이번만은 잘 주의해서 썩기
지 안도록 하게』
하고 그거를 하산의게 주었습니다.
하산은 눈물을 찻끔 흘리며 조와
했습니다. 그래 이번은 언다가 감출
수가 없고 생각한것이 우연히 저
은은 향아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썩
에다 누두면 누구의게 들킬리는
것지 하고, 자괴 마누라도 모르게 얼
른 그 속에다 갖다 감춥니다.
그 이튿날 하산은 안심하고 장으
로 불긱을 사려 갔습니다. 그런데 일
이 공교하게 되더라고 하산이 나간
동안에 비누 장사가
『비누요! 비누! 비누드렁 사랴』

하고 의치면서 집 아플 지나갔습니다.
 하산의 마누라는 그 비누 장사를
 볼러서 비누를 샀습니다. 그러나 돈
 이 한푼도 없으므로 비누 값 대신
 이 거 항아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리고는 아주 큰 리를 보았다고 혼
 자 조와하고 잊었습니다.
 그리자 맛춤 하산이 돌아와서 본
 즉, 거 항아리가 간곳 없으므로
 『거 항아리를 잊었어』
 하고 무릎습니다.
 마누라는 멋도 모르고
 『비누허구 바쳤지. 여간 리 이 된것이
 아냐』
 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하산은 눈알이 속 백질것 가치 압
 작 놀렸습니다.
 『그 수외는 돈을 잔축 두는데』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번은 마누라가 다시 눈알이 속
 질것 가치 압작 놀내서 막 우렷습
 니다. 그러나 비누 장사는 어대로 간
 지 알수도 없고, 아모리 우리도 소
 용이 없으므로 두 양주는 마음을 가
 람안쳤습니다.

하산은 또 다시 새끼 요는 일을
 계속은 했으나, 일을 하면서도 만일
 사 아디가 차커오면 어떻게 할까 하
 고, 그만 밤낮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산이 집에서 일을 하느
 니가, 사 아디의 모양이 커편에 보
 이었습니다. 하산은 그만 겁이 나서 어
 대도 수머바릴까 하다가, 아 니다 아
 니며, 그런 지을하면 더 나쁜 일이
 다 하고, 그대로 인커서 일을 했습
 니다.
 사 아디는
 『이번은 하산이 큰 권방을 버렸스
 러니』 하고 혼자말도 하며 와본거시
 웬절 역시 그런 모양으로 조금도 변
 함이 없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산은 고개를 숙인 채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
 은 사 아디는 한참 듣고 생각하더니
 만, 조금 있다 그대로 도라가 버렸습
 니다.
 사 아디의 친구중에 사 아도라는 사
 람이 있었는데, 사 아디는 하산의 이

야기를 사 아도에게 했습니다. 그러니
 가 사 아도는
 『그러면 이번은 내가 하산을 한번
 구제해보겠네』
 하고 하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 아도는 길에서 남으로 만든 낙
 시추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걸 가
 지고 하산의 집에 간즉, 사 아디의 말
 과 같이 하산은 새끼를 요고 잊었
 습니다.
 『여보게, 하산이 이거를 하나 줘.
 이거는 지금 오다가 길에서 주스
 거인데, 꼭 어디 소용되는 데가 있
 것이거나, 잘 간직하야 두게』
 하고는 남추를 주었습니다.
 하산은
 『이런거시 무슨 소용에 달까』
 하면서 그걸 받고는 공순이 예를
 하고, 호랑에 느었습니다. 그리고는 여
 권이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산이 자라고 하야
 옷을 벗은즉, 남추가 데그르 등그려
 떨어졌습니다.
 『아아, 참 오늘 이거를 어렸지. 암
 박 이커버렸습니다』

하고는 머리마레 논체 잠이 들었습
 니다. 그랬더니, 일마있다 뒷문을 열
 령 치는 사람이 잊었습니다.
 『누구이한테, 이 반중에 와 사 람
 을 이르킬까』
 하고 무려보았으나, 어느 집에서나
 『그런거시 업는데』
 함으로 어부는 코가 속 싸커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추가 업스면 그물을 칠수
 가 업고, 그물질을 안하면 내일은 당
 장 먹을것이 없으므로, 어부는 다시
 자기 집을 나와서 하산의 곳까지 차
 커온거시었습니다.
 하산은 어부의게 그 이야기를 들
 고, 머리마레 노았던 추를 가지고 나
 와서
 『이거시라도 쓰겠나』
 하며 내어보였더니, 어부는
 『그리잔해도 이런것이 꼭 소용일
 세』
 하고는 깃배서 두번 세번 머리를 굽
 슬거리며 고맙다고 치사를 하고
 리갔습니다.
 —도 잊소—



한글타입우라이터의

유래와 발전

(下) 宋 基 柱

타입우라이터사유법

앞에서는 일반 타입우라이터의 유래와 한글 타입우라이터가 생겨진 경위를 말하였거니와, 지금부터는 한글 타입우라이터의 사용법을 간단히 적어 보겠다.

우리 한글의 문자 조직은 본래부터 아, 허, 까, 뽀, 쪼, 쑤, 뉘 등의 글자와 같이 자모음의 좌우로 붙는 것도 있고, 보, 뇨, 구, 유, 르, 돌, 꺾, 등과 같이 상하로 붙는 것도 있으며, 음, 앵, 엇, 꺾음과 같이 상하와 좌우를 혼용하여 붙이는 것도 있으나 이러한 여러가지 문자를 타입우라이터에서는 모두 四二의 키로써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자모음을 배열하여 놓았으며, 어떠한 글자든지 한 음절의 글자를 그대로 적어서 영문(英文) 타입우라이터처럼 단번에 완전한 한 글자가 적혀지는 것이 아니고, 자모음을 한 자씩 각각 따루 적어 한 음절을 적은 후에나 또는 토바침을 한 후에는 반드시 한 간격을 앞으로 돌려가게 하여야 하며, 글자 한자를 적으면 영문기척처럼 자동적으로 돌려가지 않고 한글자의 단음을 만든 후에는 간격

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앞으로 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종이에 박하여 나오는 글자는 가루인편으로 누워서 가다가 뽀아서 바루 들고 읽으면 내림도록 되었다. 이제 한글 타입우라이터의 기계 조직을 간단히 설명하면

一, 글자의 키는 앞줄로 시작하여 케-렐, 케-렐, 케-렐, 케-렐, 케-렐이라고 함.

二, 케-렐과 케-렐에는 상하로 붙임하는 것만 있고, 케-렐과 케-렐에는 좌우로 붙임하는 것만 있으며, 케-렐 우에는 한문 숫자(數字)가 있음.

三, 케-렐에는 초, 스, 구, 르, 니, 기, 오, 르, 사, 모, 고, 중, 드의 상하로 붙임하는 당소리(子音)와 나, 고, T, 기, 등의 상하로 붙임하는 홀소리(母音)들이 있고, 전 자음등은 상하로 단음만 드는 대도 쓰고 아래 토바침하는 대도 쓰며, 맨 끝 바를 편에 있는 또는 음역을 표시할 때에 원으로 표시함.

四, 케-렐 스, 초, 나, 모, 고, 중, 드, 니, 기, 오, 르, 사, 모, 고, 구, 노, 모, 보 등의 기

척복음식으로 인편에 적혀질 글자들과 예외로 케-렐에 있어야 할 고, 드, 구 등의 단음씩 당 소리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으며, 바른편 끝으로 스, 드, 사 등의 명사(並書)에 사용할 당 소리의들이 있고, 어느 것이든지 글자의 인편쪽에만 적혀질 것으로서 바른편에 적혀질 것들은 반드시 케-렐에서 찾을 것이며, 아래 토바침이 반드시 케-렐에서 찾을 것.

六, 케-렐에는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〇 등의 한문 숫자들이고 아래에 있는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ㄹ, 리, ㅍ, ㅍ, ㅍ, 등의 기척복음으로 아래 토바침하는 대만 사용함.

편 끝으로 쪼개, 키의 표는 음역을 표시할 때와 숫자(數字)를 표시할 때에 쪼개 백만을 표시할 경우에 사용하고, 또 구절을 띄울 때에도 사용하고, 표는 마지막 끝날 때에 중침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며, 외래어를 사용함에 도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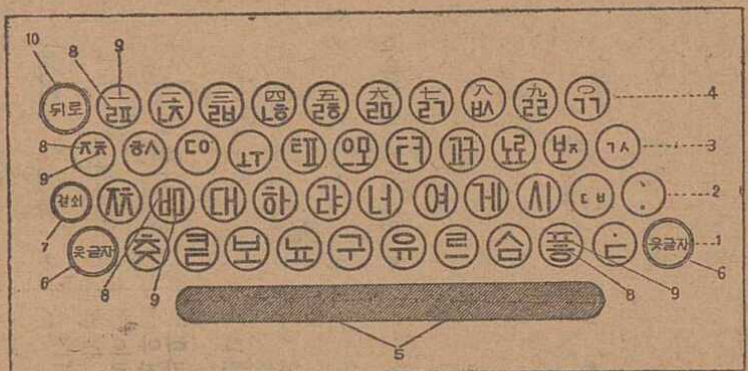
五, 케-렐에는 스, 초, 나, 모, 고, 오, 드 등의 작, 초, 쇠, 꺾, 등과 같이 새글자 이상을 한음씩 만든대 쓰는 원편우에 적혀질 복음씩 자음들과 나, T, 등의 원편 아래에 적혀질 복음씩 홀소리가 있고, 모, 고, 구, 노, 모, 보 등의 기

척복음식으로 인편에 적혀질 글자들과 예외로 케-렐에 있어야 할 고, 드, 구 등의 단음씩 당 소리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으며, 바른편 끝으로 스, 드, 사 등의 명사(並書)에 사용할 당 소리의들이 있고, 어느 것이든지 글자의 인편쪽에만 적혀질 것으로서 바른편에 적혀질 것들은 반드시 케-렐에서 찾을 것이며, 아래 토바침이 반드시 케-렐에서 찾을 것.

六, 케-렐에는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〇 등의 한문 숫자들이고 아래에 있는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ㄹ, 리, ㅍ, ㅍ, ㅍ, 등의 기척복음으로 아래 토바침하는 대만 사용함.

七, 케-렐 오른쪽편으로 케-렐의 1 수 줄리는 짧은 줄과 긴 줄을 만든대도 사용함.
八, 케-렐 좌우 끝에 있는 큰

키를 옷 글자와 케-렐과 케-렐의 바른편 글자를 적을 때에 사용함.
九, 케-렐 인편 끝에 있는 키를 걸쇠라고 부르는데, 옷 글자 키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며 특히 한문 숫자를 사용할 때에 쓰.



十, 케-렐 인편 끝에 있는 키를 「뒤로」라고 부르는데, 필요에 응하여 글자의 간격을 한 자리씩 뒤로 돌려가게 할 때에 사용함.
十一, 맨앞에 있는 걸쇠대를 앞간격대라고 부르는데, 글자의 한음씩을 적은 후 한 자리 간격

을 앞으로 돌려가게 하는 것.
十二, 등이 어떠한 키를 물론 하고 키에 배열된 글자중 인편 글자와 아랫글자를 적으려고 할 때에는 키를 그대로 돌려서 적고 키의 바른편 글자와 옷 글자를 적으려고 할 때에는 옷 글자라고 하는 키를 누르고 적으면 됨.

한글타입우라이터의 특색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 타입우라이터의 특색을 말하면
一, 조선글이면 무엇이든지 자유로 바꿀 수 있음.
一, 원본 이외의 부분을 四

五장씩 한꺼번에 적어 낼 수 있음.
一, 등사원지를 사용하며 등 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一, 쓰느 리본에 따라 여러가지 빛깔로 글자를 적을 수 있음
一, 아무리 늦게 배우는 이라도 한주일만 연습하면 속히 할 수 있음.

一, 기계는 세계에 제일 크고 이름과 신용이 높고 미국 언더우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만든 것이다. 기계 구조의 견고한 것이든지 외관의 미려함은 근대 과학 미술의 극치를 다하였으며, 주의하여 사용하면 적어도 백년을 쓸 수 있음.

한글 타입우라이터의 사용하는 방법은 대개 이러하다. 기계를 앞에 두고 실체로 설명하기에는 아주 간단하나, 글로만 말하고 보시는데는 내가 내가 말하고저 하는 뜻이 전하여지지 않을 수 없으나, 깊은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普通學校

朝鮮語讀本卷一

指導例

(五) 沈宜麟

一、教材 二十八、 눈 으로 볼건을 보오. 귀 로 소리 를 들으오. 코 로도 냄새 를 맡으오. 입 으로는 말 도 하고, 음식 도 먹으오.」
二、教材觀 道德的教材로, 人體頭部에 있는 感覺機關 耳目口鼻에 대한 機能을 알리고, 그 機能으로 인하여 自己의 生活을 더욱 向上하게 할것을 自覺시켜야 한다. 形式的方面으로는 「을, 들로는, 으로는, 로, 으로는, 오, 으로는」 등의 말쓰는 法과, 「말」字의 「[니]」바침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할것이다. 그림으로 本課의 主眼點 點은 理科的 教材로 取扱할 뿐더러, 事物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할것을 道德的 教材로 取扱하는것이 더욱 教育的으로 여긴다. 形式的 方面으로는 「를, 을, 로는 으로는, 오, 으로는」等 「로」의 使用法이며, 「[니]」바침한 「말」字에 대하여 文法 理論을 가르키는것이 아니고, 實際로 理解케하여 自由로 하게 할것이다.

1, 文... 눈과 귀와 코와 입의 소음을 쓴 글이다.

2, 耳目口鼻의 任務와 自覺

○ 「로」의 모든 볼건을 보는것이다. 눈이 업고보면 아모리 좋은 물건이 없애 노릇이라도 알지 못할것이오, 사람이 되어서 알아야만 할것자도 배우지 못할것이다. 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스럽다 할것이다. 그런 소중한 눈을 가지고 있지 놀라울것이라. 아모리루 자세히 잘 보아야 할것이다. 같은 눈을 가지고도 아모 생각없이 별거나 보는 사람은 좋은것을 보아도 무엇인지 몰을것이오, 청신차려서 자세히 보는 사람은 잘 알것이다. 그러면 눈을 가지고는 무엇인지 잘 보아서 자기의 지식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 「귀」는 소리를 듣는것이다. 사람이 하는 말소리며 그외에 여러가지 볼건의 소리를 다 들을수가 있다. 눈과 마찬가지로 같은 귀를 가지고도 청신차려서 잘 들으면 잘 알것이오, 주의 업시 들으면 무엇인지 자세히 모을것이다. 그러면 귀로는 무슨 소리든지 자세히 듣는 습관을 부쳐야 한다.

○ 「코」는 숨도 쉬고 냄새도 맡

는것이다. 그러니까, 코로 맡아보아서 냄새가 좋하면 조차 못한것으로 알것이오, 냄새가 조만 사람에게 해가 아니되는줄 알것이다.

○ 「입」은 말도 하고 음식도 먹는것이다. 먹는것은 맛을 보아서 몸에 리의할것이면 알맞게 먹을것이오, 말은 남이 잘 알아듣고 좋은 감정을 갖게 똑똑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게 말을 하여야 할것이다.

3, 插畫... 사람의 얼굴을 그린것이 다. 얼굴에는 눈이 툭, 귀가 들,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있다. 눈가에 난 털을 속눈썹이라 하고, 옷에 가죽에 줄이 끈것을 상가풀이라 하고, 눈안에 흰 부분을 흰자위, 검은 부분을 검은자위, 까만 구멍 같은데를 동자라고 한다. 눈에서 땀편쪽에 난 털이 눈썹이다. 눈썹과 머리 사이를 이마라 한다. 코에는 구멍이 들있고 속에는 코털이 있다. 코와 입사이에 잇는 줄기를 인중이라 하고, 입에서 아랫편쪽을 턱이라 한다. 입술 좌우쪽을 뺨이라 하고, 뺨 웃쪽으로 나온 뼈를 광대뼈, 광대뼈 우를 관골이라 한다. 얼굴 좌우편 귀근처에 머리털이 난 형상을 살쩍이라 한다. 귀의 거죽 들레를 귓바퀴, 아랫쪽의 달린 살을 귀면두라 한다. 눈의는 눈썹, 귓속에는 귀지, 코속에는 코나 코딱지가 잇서 다 더러운것이니, 씻어서 업도록 청하게 할것이다.

4, 新語... 볼건, 을, 보오, 귀, 소리 들으오, 코, 로는, 냄새, 맡으오, 으로는, 말, 음식, 먹으오.

5, 補充語... 눈썹, 동자, 눈곱, 콧물, 콧막지, 귀바퀴, 귀면두, 귀지, 이, 혀, 침, 가래, 뺨, 턱, 광대뼈, 살쩍 삼킨다.

6, 新字... 눈, 볼, 건, 을, 귀, 를, 코, 냄새, 말, 음식, 먹.

7, 語法과 綴字

○ 말 끝에 바침이 업을 때는 「로, 를, 로는, 오」가 붙고, 말 끝에 바침이 잇을 때는 「으로, 을, 으로는, 으」가 붙는다.

○ 終聲文字의 讀法

눈으로(누노로), 들으오(드르오), 입으로(이브로), 말으오(마드오), 먹으오(머그오)

○ 「말」字의 應用과 讀法

말는다(맛는다), 말느냐(맛느냐), 말드라(맛드라), 말자(맛자), 말기(맛기), 말지(맛지), 말소(맛소), 말것다(맛것다), 말고(맛고), 말게(맛게), 말을(맛을), 말으니(맛느니), 말은즉(맛은즉), 말으려(맛르려), 말으면(맛면면), 말으며(맛르며), 말오(맛오), 말아(맛아), 말아(맛아), 말았다(맛았다), 말아라(맛아라)

○ 「들」(으)는 例外動詞로 語幹이 「들, 듯」 두가지로 活用된다.

듣는다, 듯느냐, 듯드라, 듯자, 듯기, 듯지, 듯소, 듯것다, 듯고, 듯게, 들을, 들은, 들으니, 들은즉, 들으려, 들으면, 들으며, 들으오, 들어, 들어서, 들었다, 들이라.

三、指導方法 大要 (三時間 取扱)

1, 自由讀... (무슨 이야기를 쓴 줄인지 생각하면서 읽게 한다)

2, 試讀... (읽어보일 때 잘못 읽는 데서 모르는것을 칠판에 쓰고, 問答式으로 指導하여 준다)

3, 範讀... (發音이며 읽는法에 注意)

4, 指名讀... (몇 사람 읽혀본다)

중 등 본말선조 이 집 길 培 鉉 崔

말 본 갈 (語法學)

이 다음부터는 이 절집이를 훨씬 쉽게 하겠읍니다. 그래서 될수있는대로 원문에 대하여 간단한 평이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모노폴의 의 함

1. 말과 글의 다름이 무엇이냐?
말은 귀에 하소하는 것이므로, 막음(障壁)을 격하여서도, 또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생각을 통할수가 있지 않는, 말은 눈의 하소하는 것이므로, 막음의 없어야, 또 밝은데에 대하여는 그 생각을 통할수가 있다.
2. 말은 말한 순간에 살아지고 말지 않는, 말은 언제까지든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생각을 반복하여가면서 그것을 깨치며, 또 생각을 뒤 세상에 전하러 함에는 말이 들어야 한다.
3. 말은 그 사무치는(達하는) 일안(範圍)의 한정의 있다. 그래서 먼 데에서는 사무치지 못하며, 한때에 수 많은 사람에게 들릴수가 없다. 그러나 글자는 이 결점을 넘어서 긴다.
4. 말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면 달라지기 쉽지만, 글은 영구히 그대로

대로 전하여간다.

2. 소리와 뜻의 뜻을 보기를 들어 말하라.

소리말은 귀에 하소하는 말의 소리를 눈에 보이도록 적는 표(符號)이니, 친히 말의 부속물(附屬物)이요, 뜻말은 애미 생각의 눈에 바로 보이도록 하는 표이니, 생각을 귀에 하소하는 말과 서로 대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리의 말인 한글「하늘」은 일정한 말의 소리를 적은 것이니, 반듯이 그 일정한 소리로 읽어야 그 뜻이 통하는 것이요, 뜻말인 한자(漢字)「天」은 직감으로 생각을 눈에 보이도록 적는 표이니, 그것을 보기만 하면 능히 그 뜻이 통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三、四、五의 답은 약함.

첫재 때 소리갈 (音聲學)

첫재 가름 소리의 갈래

1. 홀소리(母音)와 닿소리(子音)
먼저 말뜻(語義)을 가지고 보면, 홀소리란 홀소리도 능히 소리날수 있는 소리의 뜻이요, 닿소리란 다른 소리 곧 홀소리에 닿아야 소리날수 있는 소리의 뜻이다. 이 말의 원어(原語)인 모양말들도 다 이 뜻으로 되었으며, 한자로 옮긴 「母音」과 「子音」도 이 뜻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실례에서는 닿소리 가운데 에쳐도 「人」 같은것도 홀로 날수 있을뿐 아니라, 홀소리 모양으로 장단(長短)조차 있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 말뜻이 그 갈말(術語)의 진정한 과학적 개념(概念)을 원천히 표시한 것은 못된다. 그래서 본말(原文)

에 적은바의 같이 그 뜻을 매기는 것이다.

이제 홀소리와 닿소리의 다름을 들전대.

1. 홀소리는 다 목청을 떨어올려서 나는 소리이요, 닿소리는 그렇지 (口, 舌, 鼻)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 (鼻, 人, ...)도 있다.

2. 홀소리는 다 입으로만 나오지만, 닿소리는 코로 나오는 것(口, 鼻, 舌)도 있다.

3. 홀소리는 입으로 나올때 큰 막음을 입지 아니하여 규칙있는 소리결(音波)을 가지고 순하게 나는 악음(樂音)이지마는, 닿소리는 나오는 길에 목청, 이봉(氣聲), 혀, 입술 들의 큰 막음을 입기 때문에, 규칙없는 소리결을 가지고 거슬러나는데 들소리(噪音)이다.

① 한글의 글자 수를 뒤지의 차례의 이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의 생 각과 안(案)이 있지만, 한글 비음법 통일안에서 규정된 것이 본체에 적은 것이다.

| | | | | | |
|-----|-----|-----|-----|-----|-----|
| 「기」 | 「니」 | 「더」 | 「러」 | 「미」 | 「비」 |
| 「아」 | 「어」 | 「우」 | 「어」 | 「어」 | 「어」 |
| 「야」 | 「야」 | 「야」 | 「야」 | 「야」 | 「야」 |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 「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닿소리의 이름의 첫재 날(音節)「기」나 「미」비시이지치키피하하는 그 소리가 첫소리로 날려의 소리값(音價)을 나타낸 것이요, 그 이름의 끝 날(音節) 「우」는 음운(음운음운음운음운음운음운)으로 그 닿소리가 끝소리 곧 바침으로 날려의 소리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홀소리의 이름「아야어우」는 그 홀소리의 소리

값 그대로써 이름을 삼은 것이다. 옛날 중종 시절의 최세진의 지은 훈몽자회란 책에서는 「스스키르프우」는 바침으로 안 쓴다 하야, 그 이름도 비친현 소리를 더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치키피하」로만 지었었다는, 이케 우리는 그러한 편견에 잠힐 필요가 없는즉 우애와 같이 이름지었다.

1. 「홀소리(濁音)와 맑은소리(清音)의 구별은 목청을 떨어올리고 안 올리는 데에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는 쉬운 일이다. 숨다머리(喉頭)(목 앞쪽에)를 볼거진대(우애 손가락을 대고서 그 소리를 내면, 흐린 소리는 손가락에 떨(振動)이 있음을 느낀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

三. 홀소리(單音)와 거듭소리(重音). 그 뜻은 본체에 적힌대로로 똑똑하다. 여기에는 다만 몇가지 주의만 보래어 두겠다.

「가」나 「가」 글자로서는 거듭이므로, 소리로서는 앞뒤의 다름이 없는 홀소리이다. 또 「가」도 어떤 시골(舍羅道)서는 홀소리로 내기도 하지마는, 대중소리(標準音)로서는 그 소리의 앞뒤가 다른 거듭소리라 할 것이니라.

「가」나 「가」를 적거름으로 풀이한 적이 있었으며, 그것에도 이치가 없는 바야니로되, 한가지의 뜻매김(定義)을 굳이 지키고 보면, 역시 홀소리로 봄이 옳으니라.

「스」나 「스」도 홀소리로 보려는 이가 있으나, 나는 이것을 거듭소리로 봄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 말본의 풀이에도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의 함

그 대답은 본말에 엮은즉 다시 적을 필요가 없다.

열두달의 별칭

(十二個月 別稱)

金台俊

열두달 열두달은 지금은 한문 그대로 「正月、二月、三月……十二月」까지 부르되,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 하지만, 그러면 중국에서 한문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조선에 나라가 성립하기도 전 이천인 원시 조선인(原始朝鮮人)들은 무어라고 열두달을 불렀을까. 중국하게 생각된다. 서촌진차(西村眞次)씨의 통구스 역술(曆術)을 논한 「月次」條 아래

- 一月 蠅의 地虫
 - 二月 花의 滿開
 - 三月 成熟
 - 四月 背骨(赤鹿)
 - 五月 新毛(赤鹿)
 - 一月 狩獵(毛皮服)
 - 二月 肩關節(鹿)
 - 三月 骨의 想起
 - 四月 狩獵(黑貂)
 - 五月 燕鴉
 - 六月 氷의 始融
 - 七月 全溶解
- 라고 하여 수렵기(狩獵期)의 「통구스족」 생활에서 월차(月

次)가 생긴것을 말하여 있지만 일동열도(日東列島)의 「달」의 대한 칭호는 더 흥미있는것이 많다.

- 一月 ムツキ
 - 二月 キサラギ
 - 三月 ヤヨヒ
 - 四月 ウツ키(植田)
 - 五月 サツ키
 - 六月 ミ나츠키(水無月)
 - 七月 フ미츠키
 - 八月 ハ츠키(初穗)
 - 九月 나가츠키
 - 十月 카미나츠키(神嘗收穫)
 - 十一月 シモ츠키(霜月)
 - 十二月 シハス
- 이는 자구달웅(佐久達雄)씨가 동양고대사학회 지적한것처럼 비로소 농업경제(農業經濟)에 들어간 대화민족(大和民族)의 「달」에 대해서 부른 칭호였던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조선서는 어떻게? 「正月은 무엇?」 정월 일월 열두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일월을 특히 「설」

날이라 한다. 「설」 또는 「초월」이란 말은 사물의 비롯(創初), 또는 태생이란 뜻이 아닌지? 또 정월은 「어정정월」이라고도 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어정어정」보내버리게 되는 정월이라는 말 같다.

二月은 영동달, 동동곡(動動曲) 이월조의 「이월 보로매」 아오 높이 현등 불다호라 만인 비취실즈이샷다 아오 동동다리」라고 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제주(濟州)사람들이 이월 초하룻날에 장대(竿) 열둘을 세우고 귀신을 마지하여 케사하며, 또는 약마희(躍馬戲)를 하여 이를 「燃燈」이라 하였다. 그러면 「燃燈」이 그 후 「永登」, 「靈登」으로 변한 일가, 그러나 오늘날 영남 일대의 집집에 케사하는 「영등」, 「영등」신인 풍신(風神)이라는 의미에서 이는 나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복하는 버릇이 생긴 후에 만들어진 시작한 귀신일듯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월은 영등달이었을것 같고, 제주에서 아직도 영등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三月은? 일월, 일월, 오월, 오일, 칠월, 칠일, 구월, 구일, 처럼 중삼(重三) 三月 三日)도 삼일(뒤에 와전되어 삼절이라 함) 명절이라 하지만, 이는 중국 상사(上巳)의 습속이요, 조선에는 무슨 달이라고 했는지 알수 없다.

四月? 또한 알수 없다. 와일(八日) 곧 석가 탄생일은 유사이후 인도 불교가 수입된 이후에 숭상된 와일명절일뿐이다. 五月은 수릿달? 보통 오월, 오일을 단오(端午)니, 천중가신(天中佳辰)이니 하는 것은 중국문자요, 조선에서는 오월 오일을 수릿날이라 하였다. 수리 車衣(三國遺事 文武水瀨(洌陽歲時記 五月條) 戊衣(東國歲時記 五月條)라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수릿날은 속어(艾葉)으로 떡을 해먹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수릿떡을 의미한것이라 하였다. 아마 획득경제(獲得經濟)의 유물로서 이 달에는 많이 「수릿취」를 캐어 먹은것을 알겠으며 「바취리」씨의 아이누말 신권에

세 글
천구동인
(4)

禹倬 高麗忠烈王 時 監察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건대 없다. 커근듯 빌어 다가, 마리에 불리고커. 귀 밑에 묵은 시리를, 녹여불가 하노라.

崔沖 高麗, 歷任四朝, 出入相將, 老退居鼎里, 後學廣聚, 教誨不倦, 東方學校之興, 蓋由沖始
백일은 서산에 지고, 황하는 동해로 든다. 고래(古來) 영양은, 북방(北邙)으로 드단 말가. 두.라 불유성쇠(物有盛衰)니, 한할줄이 있다.

李兆年 高麗忠惠王時 爲政堂文學
이화(梨花)의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의 산경이커,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카(子規)야 일련만도. 다정(多情)도 병인양야, 잠 못 들어하노라.

李存吾 號孤山, 高麗 恭愍王時 詩
구름이 무심한단 말이, 아 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있 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래여 광명한 날빛을, 덮어 무산하 리오.

元天錫 號耘谷, 高麗進士
홍망이 유수(有數)하니, 만

三月은 草根을 캐기 시작 하는 달
四月은 草根을 많이 캐는 달
五月은 玫瑰를 캐기 시작 하는 달

이라는것처럼 이는 오월 오 일에만 한한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달에 많이 수릿취를 캐어서 상식(常食)하였음을 말하는것 같고, 오늘날도 시골 농민에게 이 풀은 식용(食用)에서만 아니라 「부수기」으로 애용되기도 하며부터 전하는 습관인듯하다.

六月은 유두달(流頭) 유월 십오일은 유두날이라고하여 고령 김기극(金己克)의 문집에 이날 동류수(東流水)에 목욕하여 발케불상(祓除不祥)하고 계음(稷飲)하여 유두면(流頭宴)이라고 한다 하였다. (東國歲時記 六月條에서) 그러나 이 「流頭」라는 한문자는 너무 서투르고 이는 필면 조건 옛 풍속에서 나온것 같으며,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三國誌)의 동이열전(東夷列傳)의 「夫餘人이...五月下種訖에(또는 田竟에) 신(神)을 제사하고 「醉舞百戲」한다고 하였으니, 이때의 유습이 아닌지, 또 그때의 농전(農占)으로서 오늘날의

유평(流)이 같은것이 발달되어 온것이 아닌가 한다. 케일일은 버를 「流頭버」라고도 한다.
七月은? 알수 없다.
八月은 가윗달?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옛풍속에 칠월 보름부터 육부(六部) 여자들이 모여서 질삼하야 팔월 보름날에 그 승부를 결할세, 이때에 가무백희(歌舞百戲)를 하며 이때를 가배(嘉俳)라 한다고 하였으니 심오일날은 한가위(큰가위), (가위, 가위, 唇輕音의 脫落)요, 이로 인하여 이달은 가위달이라 하였을가 한다. 가위는 오늘날의 「계(契)의 근원이란 설도 있다.

九月은? 알수 없다.
十月은 상달 혹은 「霜달」, 이라고 하나, 무당 녀두리에 채용된 「시월상달」이란 말의 성질상 이는 반듯이 귀신잡기는데 관계된 어귀인듯하다. 시월 농사가 마치어서 어느나라 고대를 불문하고 반듯이 크게 신에 치사하는 제사놀이가 있다. 그리하여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등등 동이열전(東夷列傳)에 「조선사람이 시월 제천을 하였다는가, 그렇지 않으면 十月農功畢後 귀신을 제사하기를 오월 田竟後와 같이 한다고 하였다」 한다. 지금도 흔히 시월을 상달이라고 쓰지만, 上月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신사(神事)를 표시한 말일까? 十一月을 동짓달, 이는 중국에서 온 말이요, 조선서는

옛말찾기

(四回) 龍飛御天歌(3)
【놀아】 노래(歌) 『놀아피 일흔칠 미르니』 十六장
【일흔칠】 이름(名) 『놀아피 일흔칠 미르니』 十六장
【앞(前)】 『英主△알피』 十六장
【부끄러리】 부끄러워하리 『내부끄러리』 十六장

무어라고 했는지 알수 없다. 흔히 평안도에서 「엄지 동짓달」이라고 하지만 그도 알수 없다.
十二月은 첫달, 시웃달 이 달은 예전 수렵경제시대(狩獵經濟時代)에는 반듯이 수렵에 대한 제사의식이 있었던것이며, 납향(臘享)(혹은臘平)날에 새를 잡아먹는 풍속도 이에서 난듯 하고, 훈몽자회(訓蒙字會)에 「臘」은 「나평」이라 하며, 시복서는 「臘」을 「첫달」이라고 읽으니, 아마 그 기원이 먼듯하되,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다.

追記,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읍니다. 여러분의 친절 한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필자)
【가리다(擇)】 『姓골히야』 十六장
【웃으리(晒)】 『내내웃보리』 十六장
【맛(罪)】 『宮監의다시어다문』 十七장
【인마란(人馬)】 『다시어다문』 十七장
【마음(心)】 『말의미스모』 十八장
【달애다(誘)】 『하늘하달애시니』 十八장

【외볼(京)】 『외볼使者들』 十八장
【모르다(不知)】 『구든城모르샤』 十九장
【하나비(祖)】 『선하나비들』 十九장
【도둑(賊)】 『외한도스들』 十九장
【남(他人)】 『四海를넌글주리여』 二十장
【바다(海)】 『바르래비업거늘』 二十장

월대도 추초(秋草)도다. 오백년 왕망이, 목축(牧笛)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께이, 눈볼 겨워하노라.

李穡 號牧隱, 字穎叔, 韓山人, 高麗門下侍中, 元朝翰林, 本朝封韓山伯, 右相, 諡文靖, 毅子.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머호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곳 몰라하노라.

鄭夢周

號圃隱, 字逢可, 延日人, 高麗侍中, 本朝贈領議政, 諡文忠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塵土)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吉再

號治隱, 字再之, 善山人, 高麗注書

오백년 도망지를, 필마(匹馬)로 돌아오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대 없네. 어즈버 래평 연월(烟月)이, 꿈의 링가 하노라.

郭輿

高麗人, 稟官隱居, 至睿宗朝召致之, 以烏龜之金門舊客

오장원(五丈原) 주야일에, 여별손 케갈무후(諸葛武侯). 감중 보구중다가, 장성(將星)이 떨어지니, 지금에 양표중어(兩表忠言)를, 못내 슬어하노라.

李之蘭

初名俊豆蘭, 女眞人, 嘗從我太祖大王征伐, 屢立功, 賜姓李氏, 封海陽伯

조선(楚山)에 우는 번과, 패러(沛澤)에 잠긴 용이. 토운(吐雲) 생풍(生風)하니, 기세도 장할시고, 진나라 외로운 사슴은, 갈곳 몰라하더라.

한글綴字法是非에對한聲明書

대개 朝鮮文綴字法에 對한 關心은 다만 語文 研究家뿐 아니라, 朝鮮 民族 全體의 마땅히 가질바 일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日日千言으로 글 쓰는 것이 天與의 職務인 우리 文藝家들의 이에 對한 關心은 어느 누구의 그것보다 더 切實하고 더 緊迫하고 더 直接的인바 있음을 自他가 共認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言文의 記寫法이 不規則 無整頓함에 가장 큰 苦痛을 받아왔고, 또 받고 있으며, 이것이 歸一統全되기를 누구보다도 希求하고 또 渴望한 것이다.

보라! 世宗 聖主의 朝鮮 民族에 끼친 이 至大至貴한 寶物이 半千載의 日月을 經하는 동안, 慕華羣의 毒手의 議謗은 얼마나 받았으며, 詭辯者의 誤導의 戕害는 얼마나 입었는가.

그러하야 李朝 五百年間 士大夫層의 自己에 對한 沒覺 等棄 淺視 侮蔑의 結果는 畢竟이 至重한 言文 發展에까지 莫大한 阻礙와 障翳를 주고야 만 것이다.

그러다가 故 周時經 先覺의 血誠으로 始終한 畢生의 研究를 一劃期로 하야, 眩亂에 들고 蕪雜에 빠진 우리 言文 記寫法은 一步 光明의 境으로 救出되어 온 것이 事實이요, 마침내 斯界의 權威들으로써 組織된 朝鮮語學會로부러 去年 十月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發表한 爾後 周年이 차기 前에 벌써 都市와 村郭이 이에 對한 熱心한 學習과 아울러 漸次로 統一을 向하여 促步하고 있음도 明確한 現象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近者의 報道에 依하여 巷間 一部로부터 畸怪한 理論으로 이에 對한 反對運動을 이르켜, 公然한 攪亂을 피한다 함을 들은 우리 文藝家들은 이에 對過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所謂 反對運動의 主人公들은 일즉이 學界에서 들어본적 없는 夜半叢生의 『學者』들인만큼, 그들의 그 일이 비록 微力無勢한 것임은 毋論이라 할지나, 或 期約 못한 愚蒙에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迷路에서 彷徨하게 된다 하면, 이 言文 統一에 對한 舉族의 運動이 蹉跎不進할 嫌이 있을가 그 萬一을 戒嚴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同時에 일에는 매양 조그마한 衝動이 있을지마다 罪過를 남에게만 轉嫁하지 말고 그것을 反求諸己하여 自身의 至

至 無缺을 힘쓸 것인만큼, 이에 際하여 言文 統一의 重責을 지고

있는 朝鮮語學會의 學者 諸氏도 語音의 法理와 日用的 實際를 兩兩相照하여 偏曲과 硬塞이라고는 秋毫도 없도록 再三 考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如何間 民衆의 公眼 앞에 邪正이 自判된 일인지라, 이것은 「呼訴」도 아니요, 「喚起」도 아니요, 다만 우리 文藝家들은 文字 使用의 第一人者의 責務上, 아래와 같은 三則의 聲明을 發하여 大衆의 앞게 우리의 見地를 闡曉하는 바이다.

一、우리 文藝家 一同은 朝鮮語學會의 『한글 統一案』을 支持 準用하기로 함
二、『한글 統一案』을 阻害하는 他派의 反對運動은 一切 排擊함
三、이에 際하여 朝鮮語學會의 統一案이 完璧을 이루기까지 進一步의 研究 發表가 있기를 促함
甲戌 七月 九日

- 姜敬愛 金基鎮 成大勳 尹聖相 林麟 張起悌 金東仁
- 李鍾洙 李學仁 梁白華 田榮澤 梁柱東 朴月灘 李泰俊
- 李無影 張貞心 金起林 金慈惠 吳相淳 徐恒錫 李洽
- 朴泰遠 皮千得 鄭芝鎔 金玟燮 李鍾鳴 趙碧岩 朴八陽
- 洪海星 尹基鼎 韓仁澤 金泰午 宋彰 李定鎬 李北鳴
- 毛允淑 崔貞熙 朴花城 李箕永 朴英熙 朱耀燮 白鐵
- 張赫宙 尹白南 玄鎮健 金南柱 金尙鎔 蔡萬植 朴魯甲
- 劉道順 尹石重 李相和 白基萬 林炳哲 呂順玉 崔鳳則
- 車相瓚 具王三 洪曉民 盧子泳 嚴興燮 沈薰 金海剛
- 林和 李善熙 趙賢景 金幽影 盧天命 金午男 秦長燮
- 朱壽元 廉尙燮 金東煥 崔獨鵠 金億 柳葉 李光洙
- 李殷相 (無順)

우리는 世界 어느 나라 文字보다 가장 쉽고 가장 完全한 文字를 가진 民族이면서, 그 文字 記寫에 統一이 없이 混雜을 極하였음을 一般이 다 가지 痛切하게 느끼는 不便이요 羞恥였다. 이에 先覺者 周時經氏 以後로 많은 研究가 나왔고, 각기 異說을 가졌었으나, 容年에는 小異를 버리고 大同에 合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制定된 것이다. 民衆은 이에 慶賀하였고, 이를 實行하는 過程에 들어섰는바, 最近에 突然히 韓語 綴字法 對會가 나타났다. 學界 理論은 누구나 自由의니와, 行動에 있어 黨派의 對立이 될 때, 黨派로 오물이 된 우리로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現象이다. 이에 學者나 理論家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우리 文字를 쓰고 읽고하는 文壇人들은 누구보다도 文字와 第一線의 關係者들로서 우리 文字 記寫法에 對한 聲明을 보이기 되었다. (朝鮮中央日報 記事에서)

新京有志의 聲明書

우리는 近日 『한글』綴字法에 對한 反對의 소문을 들었고, 또 이에 對한 朝鮮 文藝家 諸公에 反駁聲明을 보았다. 그런데 『한글』問題는 一部 人士나 또는 文藝家 諸公에게만 放任 論難할 바 아니라, 實로 學族的 關心과 研鑽을 要하는바 重大問題이다.

過去 우리의 尊貴한 民族的 史實은 廢潰, 또는 埋沒에 至하여, 이케 그 眞髓를 찾기 眩荒하며, 또는 언을바 거리(材)를 삼가게 되었다. 그리고 萬邦에 자랑할 世宗 聖主가 주신 民族的 寶物인 『한글』이 받은바 그 譏謗과 戕害는 또 얼마마 있었는가! 새삼스러운 느끼는바 아니거니와, 故 周時經 先覺을 맞지 않았던들, 燕羅에 빠지고 眩亂에 들었던 우리의 言文 記寫法의 重興의 發顯과 進趨의 曙光을 볼수 있었으랴!

- 5, 齊讀...(여러이 소리를 맞추어 읽게 한다)
- 6, 大意 發表 練習...(무슨 말을 썼는지 發表시켜 본다)
- 7, 分節 問答 練習...(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나? 귀는...코는...입은...)
- 8, 新語 新字를 板書하고, 讀法을 練習한다.
- 9, 插畫나, 掛圖나, 自己 얼굴을 가지고, 顔面 各部에 대하여 自由로 發表시킨다.
- 10, 問答으로 補充하며, 얼굴의 大觀念을 明確히 알려준다.
- 11, 耳目口鼻에 대한 自覺을 갖게 說

心的 研鑽의 努力이 없었던들, 어찌 『한글』 統一의 欣悅을 느꼈으랴! 去年 十月 朝鮮語學會에서 發表한 『한글』綴字法 統一案은 實로 우리 民族 文化史上에 一大收獲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케 崎怪한 理論으로 이에 對한 反對運動을 劃策하는 一部 人士의 行動이야말로 默過容貸할수 없는 崎怪 그것이다. 이에 文藝家 諸公의 蹶起는 當然 以上の 快學로써 文化史上의 義軍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民族의 一員의 느낌을 다하여 이를 聲援하며 支持한다!

덕이 우리는 이 機會에 朝鮮語學會의 『한글』綴字法 統一案을 再吟味하여, 그 至當한바임을 支持하며, 나아가 努力을 謝促하여 마지 않는다.

一九三四年 七月 日

新京 金夜聲 金晚窩 李啓白
女圭恒 鄭之一 崔衡宇
張小峰 (不同順)

- 12, 讀法의 練習과 大意 整理...(얼굴에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의 소용을 쓴 글이다)
- 13, 終聲文字의 讀法 練習...(눈으로 들으오, 입으로 말으오, 머으오)
- 14, 「말」字의 取扱...(글자 쓰는 법, 바침의 稱呼 「리음」, 活用과 그 법(은法))
- 15, 「로, 으로, 를, 을, 로는, 으로는, 오, 으오」등을 다른 말에 適用하여 比較 練習한다.
- 16, 書取 練習。——(視寫, 聽寫)

복사판

용서 못할 죄악

우리를 등일의 앞길을 막으려는 大과들의 불철저한 成명서란 것이 들리고, 앞질러서 문사 케씨로서 그를 공격하는 成명서가 만천하에 퍼지며, 이를 이어 해내 해외에서 正義(正義)를 가진 유지들의 격려(激勵)가 문(文)이 빚발같이 분사(分)되어온다. 그것은 대강 추려서 본지에 실어볼가 하였더니, 우리는 자중(自重)하고 고쳐 그리고 그결량은 그만두기로 한다. 그리고 「三千里」잡지 팔월호에 金八峯씨의 「文藝時事感」이라 표제한 글 가운데서 좀 배겨내볼가, 원래가 그리 길지는 않은 것이나, 그다로 읽겨 오기에는 너무 염치없는 일이므로, 필자 되신분에게 좀 미안하지마는, 거두질미하고 가운데 토막만 몇질 빼어서 아래에 배껴어 쓴다.

『前略...』도 最近 數十年間을 두고 한글 研究家들끼리 우리말의 整理와 統一에문에서 서로 意見을 달리하여가지고 서로 甲論乙駁하다가, 겨우 昨수에 이르러서야 한글 바추법 統一案이라는 것을 成立하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함은 말하지 말고, 다만 現在 崎怪한 環境 가운데서 그대로 發展하면서 있는 우리 民族語의 當面한 모든 苦難만을 가지고 생각할지라도, 한글 統一의 大業은 朝鮮人된 各自가 直接 精力的으로 研究에 沒頭할수 없으리니, 그것을 聲援 支持할 義務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數十年間 心力을 기울려 各自가 不到達한 結論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그중의 한개의 完全에 가까운 案

을 作成하기에만도 數年의 歲月을 虛費한 한글 研究의 權威者들의 統一案을 反對하는 尹致昊 以下 非한글學者 諸氏의 朝鮮語整理期成會의 意圖는 무엇인가. 한글 統一을 攪亂하는 眞意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傳하는바에 依하면, 前記 朝鮮語期成會는 發表된 委員中에는 빠지었으나, 그대신 뒤에 숨어서 이會를 組織하게 하고 事實上 指導하는 사람은 朴勝彬氏라 한다. 그리고 이會는 一部 貴族과 小市民層의 若干의 分子들 도외 組織된 社交團體인 啓明俱樂部를 中心으로 하고서 이루어진 것이라 함은 그 委員들의 立場을 보아서 直覺할수 있는 일이다. 一個의 社交俱樂部가 一個人的 獨特한 異論을 發위가지고, 全民衆의 使用하는 民族語의 統一을 反對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案으로 외 矯正한다든가 하는 일은 능히 할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또 그것은 건방지고 僭越한 이야기인가. 혹은 그렇지 아니한가, 數十名의 學者가 한 勞心專力하여 얻은 統一案일뿐 아니라, 尙 社會 全般의 智識 있는 人士가 그것에 좃아가고 있을 지음에 一個人的 異說에 情實을 贊同하여가지고 그 統一事實을 妨害하는 行動이라 한다면, 그것은 容恕할수 없는 罪惡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의 問題의 中心은 이 朝鮮語整理期成會의 主張, 學說及 그 政治的 意義等을 分析 批判 評價하려 함에 있지 않고, 朝鮮文의 主人公이 되다싶이 日常 이것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는 文藝家들이 從來도 朝鮮語文에 關한 運動에 無關心 乃至 等閑視하여 온 行爲에 反省을 促하려 함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이機會에 우리 民族語의 整理統一事業을 援助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의 文學語로서의 完全을 準備할 必要를 充分히 認識하자 함에 있다... (後略)

한글신문

본월 한글 강습회

강사는 이희승씨

봉천(奉天)에 있는 조선 청년들은 한말의 지식은 연기의 하여, 본회 간사장 이희승(李熙昇)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난 칠월 삼일부터 동십팔일까지 봉천 여자기독교강당에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는데, 강습원은 칠십여명이었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김선기씨

파리에 무사도작

조선어학회에서 재외 연구원으로 차송된 김선기(金善琪)씨는 지난 칠월 이십 사일 프랑쓰 파리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기별이 왔다.

김천에서 열린

한글 강습회 성황

김천(金泉)읍 동아일보 지국 주최로 지난 칠월 삼일부터 팔일 이일까지 당시 금릉학원 강당에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는데, 강사는 이극로(李克魯)씨요, 강습원은 남녀 오십여명이 되었다.

인천에 한글 강학회

인천(仁川) 예수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교역자양회(敎役者修養會)에서는 지난 팔월 삼일에 이극로(李克魯)씨를 청하여, 약 칠시간동안 한글과 음법에 대한 강화를 열었다.

동아일보사 주최의

한글 강습회는

사정으로 중지되었

동아일보사에서 금년 여름에 제3회 한글 강습회를 권조신 오십여명에 개최하기로 준비중인데, 삼남 대수재와 기타 관계로 부득이 전부 중지하게 되어, 일만에 대하여 아직지 아니한 유감을 끼치게 되었다.

新刊紹介

詩集 忘憂草

金岸曙 譯

詩歌의 移植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對한 가장 좋은 解答을 준것이 이 詩集이다. 이 譯者의 이 譯詩集이야말로 譯은 譯대에 술은 담은 것이다. 原文과 對照하여 보는것도 興味가 거니와, 漢詩를 鑑賞하는 點에서 또한

많은 體驗을 가질것이다. 더욱 그 豪華版에 이르러서는 肉筆 二十六枚, 裝禱, 그 印刷가 朝鮮에서 記錄이다. 삼가 좋은 冊을 얻음것을 江湖 여러분과 함께 즐겨하는 바이다. (普及版 五百部 價 金 七十錢, 豪華版 二十五部 價 金 五圓.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新人文學 二號 (十月號)

世界 各港口 이야기 (上海의 밤) 日華 海軍의 太平洋 戰略. 國民政府에 朝鮮人 官吏. 世界 文豪 奇話集. 文人들의 家庭生活. 文人들의 書齋 巡禮. 印度洋을 넘어 메루살렘에(紀行). 南十星下的 南極(紀行). 隨筆. 詩. 小說等 滿載. (京城 堅志洞 靑島社 發行. 振替京城一八三七番 一部 二十錢)

詩集 琴線

張貞心 孃 著

敘情詩 八十首, 時調 八十首, 童詩 二十一首, 句句字字 眞珠 같이 아름답고 薔薇 같이 향기롭다. (쿠로쓰洋裝 一冊 定價 九十錢.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青年常識叢書

| | | |
|-------|---|-----|
| 朝鮮歷史 | 全 | 二十錢 |
| 西洋歷史 | 全 | 二十錢 |
| 世界地理 | 全 | 二十錢 |
| 政治篇 | 全 | 二十錢 |
| 經濟篇 | 全 | 二十錢 |
| 法律篇 | 全 | 二十錢 |
| 哲學概論 | 全 | 二十錢 |
| 社會學 | 全 | 二十錢 |
| 人體生理 | 全 | 二十錢 |
| 家庭衛生 | 全 | 二十錢 |
| 新體書翰文 | 全 | 二十錢 |
| 朝鮮語文法 | 全 | 二十錢 |
| 物理解 | 全 | 二十錢 |
| 商業學 | 全 | 二十錢 |

農村夜學教科書

| | | |
|------|---|-----|
| 勞働讀本 | 一 | 十五錢 |
| 勞働讀本 | 二 | 十五錢 |
| 勞働讀本 | 三 | 二十錢 |
| 勞働算術 | 上 | 十五錢 |
| 勞働算術 | 下 | 十五錢 |
| 漢字初步 | 全 | 二十錢 |
| 勞働理科 | 全 | 二十錢 |
| 農業初步 | 全 | 二十錢 |
| 勞働書翰 | 全 | 十五錢 |

投稿歡迎

本誌는 讀者 여러분의 原稿를 기다립니다. 여러 本의 귀중한 의견을 이 紙面을 통하여 발표하시 기를 바랍니다.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에 관한 意見 發表. 一、感想文. 本誌나 혹은 다른 書籍을 읽고 감상된것. 一、通信文. 한글에 關한 것으로 本誌나 知友에게 편 知하는것. 一、研究資料. 地方 사투리, 傳來 童謠 民謠, 傳說, 古談 等 其他.

| 價定 | |
|-----|------|
| 一部 | 五錢 |
| 六個月 | 三十錢 |
| 一箇年 | 五十五錢 |

代金은 받듯이 先金을 要함.

昭和九年八月三十日 印刷
昭和九年九月一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允宰
印刷人 金鎮浩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代金を 보내실

때는

京城府花洞 一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

京城壹〇參六番

으로 하시오